

히브리서의 성령론의 특징

장 동 수

〈신약학·교수〉

dschang@kbtus.ac.kr

I. 서론

신약의 책 중에서 독특한 기독교론으로 유명한 히브리서에는, 기독교론에 치여서 그런지, 성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학자도 있다.¹⁾ 그러나 히브리서는 일곱 군데에서 성령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에는 신약의 다른 책에서 말해주지 않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도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처럼 소홀한 분야를 연구하여 히브리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하고 신약성서의 성령론의 지평을 확장하고자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우선 히브리서의 성령론에 대한 연구 상황을 살펴보고(II장), 히브리서의 성령구절들을 주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III장). 이렇게 나온 결과들은 종합되고 또한 신약의 다

1) Lindars는 “사실상 성령은 서신의 논증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the Spirit plays no part in the argument of the letter)” 라고 하였다: Barnabas Lindars, 『히브리서의 신학』, 장동수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1), 89.

른 책들의 성령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히브리서의 성령론의 특징이 분별될 것이다(IV장).

II. 히브리서의 성령론 연구에 대한 반성

21세기에 들어서기까지 히브리서의 성령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미약하여, 히브리서에서 의 성령은 소위 ‘잊힌 성령’(the Forgotten Spirit)이었다.²⁾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에는, 특히 대제사장 기독론이나 아르케고스(ἀρχηγός) 기독론과 같은 독특하고 강력한 기독론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³⁾ 성령에 관한 관심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전형적인 예로써, 지난 세기 초에 Swete는 “히브리서에는 성령 신학이란 없다(in Hebrews there is no theology of the spirit)”고 주장하였다.⁴⁾ 또한 지난 세기말에 Turner도, 히브리서는 “예수가 창조와 구속의 주님(Lord of creation and redemption)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기독론적 신앙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성령에 대하여는 그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이위일체적(properly binitarian rather than trinitarian)”인 하나님 관을 함유하고 있다고,⁵⁾ 주장한다.

하지만 히브리서에 열두 번 등장하는 어휘 “프뉴마”(πνεύμα, 영, 바람)

2) David M. Allen, “The Forgotten Spirit’: A Pentecostal Reading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Journal of Pentecostal Theology* 18 (2009): 51-66, 인용구는 51.

3) 히브리서의 기독론의 특징에 대하여는, Lindars, 「히브리서의 신학」, 17-8과 장동수, “히브리서 기독론의 성격과 목적,” 「복음과 실천」 33 (2004년 봄): 33-58을 참조.

4) H. B. Swete,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1909; repr., Eugene: Wipf&Stock, 1998), 248-9.

5) Max Turner, *The Holy Spirit and Spiritual Gifts - Then and Now* (Carlisle: Paternoster, 1996), 169-70.

는, 인간(πνεύμα, 4:12; πνεύματα, 12:9, 23)이나 천사(πνεύματα, 1:7, 14)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을 제외하더라도, 분명히 ‘성령’(πνεύμα ἁγίου)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는 일곱 구절(2:4; 3:7; 6:4; 9:8; 9:14; 10:15; 10:29)에서 나온다. 히브리서가 위기상황에서 전해진 설교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이고 또한 이 성령구절들의 대부분이 기능과 내용 면에서 히브리서의 근간을 이루는 다섯 경고단락(2:1-4; 3:7-19; 6:4-8; 10:26-31; 12:25-29)에 위치하기 때문에,⁶⁾ 히브리서 설교에서의 성령의 기능은 더욱더 무시될 수 없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들어서면서 여러 학자가 히브리서의 성령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⁷⁾

-
- 6) 히브리서의 경고단락의 위치와 기능, 신학적인 논증 등에 관하여는 Herbert Bateman, ed, *Four Views on the Warning Passages in the Hebrew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7)를 참조.
- 7) 히브리서의 성령에 대한 글들 중에는, 위에서 인용한 히브리서의 오순절 독법을 시도한 Allen의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나왔다. Martin Emmrich, “Pneumatological Concepts in Hebrews”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1); Stephen Motyer, “The Spirit in Hebrews: No Longer Forgotten?”, in I. Howard Marshall et al eds., *Spirit and Christ in the New Testament and Christian Theology: Essays in Honor of Max Turner* (Grand Rapids: Eerdmans, 2012), 213-27; Jack Levison, “A Theology of the Spirit in the Letter to the Hebrew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8 (2016): 90-110, 히브리서의 성령론을 포함하는 연구서나 논문집들도 여럿 나오고 있다: Keith Warrington, *Discovering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5); Marshall, I. Howard, et al eds, *The Spirit and Christ in the New Testament & Christian Theology: Essays in Honor of Max Turner* (Grand Rapids: Eerdmans, 2012); Jack Levison, *Inspired: The Holy Spirit and the Mind of Faith* (Grand Rapids: Eerdmans, 2013); John T. Carroll,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2018). 그리고 Schreiner는 히브리서의 주석가로는 거의 유일하게 성령론을 히브리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따로 논의한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Thomas R. Schreiner, 「히브리서 주석」, 장호준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694-8.

III. 히브리서의 성령구절에 대한 주석적 분석

위에서 언급한 대로, 히브리서에는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는 어휘, (τὸ) πνεῦμα가 총 12번 나온다. 이 중에서 다섯은 사람의 영 혹은 천사로 볼 수 있는 구절이고,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은 일곱이다. 히브리서 2장 4절, 3장 7절; 6장 4절; 9장 8절; 10장 15절에서는 τὸ πνεῦμα τὸ ἁγίου(“성령”)으로(밑줄 친 구절에만 관사가 붙어있다), 9장 14절에서는 διὰ πνεύματος αἰωνίου(“영원한 성령/영으로”)로, 10장 29절에서는 τὸ πνεῦμα τῆς χάριτος(“은혜의 성령/영”)로 나온다. Lindars는, 이 중에서 관사가 없는 표현(2:4; 6:4; 9:14)은 성령의 위격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향력/속성을 표현한다고 주장하지만,⁸⁾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 히브리서 1장 2절(“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ἐλάλησεν ἡμῖν ἐν υἱῷ)에서도 관사를 넣지 않은 것처럼, 히브리서와 같은 수사학이 뛰어난 설교를 생산해낸 설교자에게 있어서 관사의 있고 없음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⁹⁾ 그러므로 필자는 이 일곱 구절을 히브리서의 성령론의 핵심 구절로 보고 이에 대한 주석적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1. 히브리서 2장 4절-“성령의 은사” 대(對) “성령의 강림”(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μερισμοῖς)

히브리서 2장 4절은 서신에 나오는 다섯 경고단락 중에 첫 번째(2:1-4)

8) Lindars, 「히브리서 신학」, 90-1; Attridge도 히브리서 2장 4절에서는 이 견해를 따라간다: Harold W. Attridge,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67-8.

9) Stanley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03-4.

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다. 이 첫 번째 경고단락의 핵심 내용은 처음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여러 방법(표적들, 기사들, 능력들, 그리고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μερισμοίς)을 동원하여 함께 증언해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때 4절의 마지막 일곱 단어(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μερισμοίς κατὰ τὴν αὐτοῦ θέλησιν)에서 성령을 주어진 속격(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나 은사들”)으로¹⁰⁾ 볼 것인가 혹은 목적어적 속격(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성령을 분배하심”)으로¹¹⁾ 볼 것인가가 주석가들의 핵심적인 논점이다. 바울 서신과 견주어서, 학자들은 보통 전자를 고린도전서 12장 4-11절과 연관 지어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에 초점을 맞추고,¹²⁾ 후자를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연관 지어 (하나님께서) 성령 자체를 주심에 초점을 맞춘다. 한글 번역 성경들도 이 두 가지로 나누인다.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개역성경」)는 전자를 따른 번역이고, “당신의 뜻을 따라 성령을 선물로 나누어주심으로써”(「공동번역」)는 후자를 따른 번역이다.

결론적으로 이 어구에 대한 해석상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오순절 성령

10) William L. Lane, *Hebrews 1-8,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Incorporated, 1991), 40; Schreiner는 이 어구에서 주어적 속격(“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곧 바울(갈 3:1-5)과 베드로(행 15:7-11)의 예를 들면서 목적어적 속격(“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성령”)을 지지하는 주석을 한다: Schreiner, 「히브리서 주석」, 76-7.

11) Gareth Lee Cockerill, *The Epistle to the Hebrews*, 2nd ed,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12), 123;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Hebrews*, 2nd ed,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69; Otto Michel, 「히브리서」, 강원돈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81. 이 어구의 μερισμοίς는 신약성서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어휘인데, “분배” 혹은 “분배 물(선물)”로 해석 할 수 있는 μερισμός의 복수형이다.

12) Anthony C. Thiselton, *The Holy Spirit—In Biblical Teaching, Through the Centuries, and Today* (Grand Rapids: Eerdmans, 2013), 153.

강림의 재현(들), 즉 거듭난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신으로 볼 것인가¹³⁾ 아니면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들로 볼 것인가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로 보든 상관없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2장 4절에서 구원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고 은사들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 히브리서 3장 7절-“성령께서 말씀 하신다”(λέγει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두 개의 접속사(Διό, “그러므로”와 καθώς, “-처럼”)로 시작되는 히브리서 3장 7절은 히브리서 설교의 두 번째 경고(3:7-19)의 첫 구절이며 강해하고자 하는 말씀인 시편 95편의 인용을 소개하는 문장이다. 이 성령구절은 히브리서 9장 8절(10장 15절도 포함하여)과 더불어 성령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전통적인 성령의 영감 기능)임을 말해준다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주장한다.¹⁴⁾ 성경에 대한 이러한 성령의 영감 기능에 대한 히브리서의 관점은 바울(딤후 3:16)과 베드로(벤후 1:20-21)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성경이 인용되는 문단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성령이 주어로 등장하면서 현재형 동사를 취하고 또한 인용된 말씀들이 원천에서보다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현상들이다. 이 점들을 지적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성령이

13) 히브리서의 성령구절 대부분을 오순절의 재현으로 보는 Allen은 이 어구(πνεῦματος ἁγίου μερισμῶς)의 번역에 있어서도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성령”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논지를 편다: David M. Allen, “The Holy Spirit as Gift or Giver? Retaining the Pentecostal Dimension of Hebrews 2.4,” *Bible Translator* 59.3 (2008) 59.3 (2008): 151-8.

14) 대표적인 예로는, Attridge, *Hebrews*, 114.

단순히 기록 당시의 성경 말씀에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설교될 때마다 역시 영감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청자들에게 해석해주는 분으로서의 성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대두된다.¹⁵⁾ 그래서 이때 인용한 본문의 침삭(3:7-11; 10:16-17), 설교적 확장(3:7-8; 9:6-9; 10:15-18), 어순 변화(3:7-9)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의 불연속성을 강조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이도 있다.¹⁷⁾ 하지만 “성령은 성경을 통해 기자 당시의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있는 음성을 담고 있다.”¹⁸⁾라는 주장 앞에서는 이러한 반박은 힘을 잃는다.

3. 히브리서 6장 4절-“성령의 참여자”(μετόχους γενηθέντα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히브리서 6장 4절은 히브리서의 다섯 경고단락 중에 핵심인 세 번째 단락(6:4-8)의 시작 부분에 위치한다. 첫 번째 경고단락(2:1-4)과 맥을 같이 하는 이 경고단락은, 배도자는 구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는 구절이어서, 그 해석의 난해함으로 유명한 구절이다. 2장 4절과 같이 성령(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에 정관사가 없는 “성령의 참여자가 되고”(μετόχους γενηθέντα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라는 어구는 하나의 장문으로 이루

15) Emmrich, Motyer, Levison 등이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Martin Emmrich, “Pneuma in Hebrews: Prophet and Interpreter,”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3 (2002): 55-71; Motyer, “The Spirit in Hebrews,” 223; Levison, *Inspired*, 154-62.

16) Levison, *Inspired*, 154-6.

17) Cockerill, *The Epistle to the Hebrews*, 175, 특히 각주 8.

18) Schreiner, 「히브리서 주석」, 697.

어진 경고문(4-6절)에 하나의 관사(τούς)를 앞세우고 연이어 나오는 다섯 개의 분사(φωτισθέντας, γευμαίμευς, γενηθέντας, γευμαίμευς, παραπεσόντας; “비침을 받고, 맛보고, 되고, 맛보고, 타락한 자들”) 구문 중에서 세 번째 구문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처음 네 개의 분사들은 모두 회심의 순간을 반복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마지막 분사는 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¹⁹⁾

이 구절에서도 2장 4절에서와 같이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공동번역」)(즉, 성령 강림을 의미함)과 “성령에 참여 한 바 되고”(「개역성경」)(성령 자체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이 주시는 어떤 것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음)라는 두 종류의 번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어구는, 히브리서 3장 14절의 “그리스도의 참여자”(μέτοχοι γὰρ τοῦ Χριστοῦ γεγόναμεν)와도 어휘 및 신학적 연관성이 깊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거듭난 자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²⁰⁾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령구절 대부분에 대하여 오순절 읽기를 시도한 Allen은 2장 4절과 6장 4절의 표현이 모두 성령 자신의 강림을 의미한다는 논리를 확보하고 있다.²¹⁾

4. 히브리서 9장 8절-“성령이 보여 주신다”(δηλοῦντο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

히브리서 9장 8절의 성령구절은 소위 독립속격(genitive absolute) 구문 이어서 “성령”(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이 주어이고 현재 분사형(δηλοῦντος)이

19) Lane, *Hebrews 1-8*, 141-2; Attridge, *Hebrews*, 169-72; Cockerill, *The Epistle to the Hebrews*, 268-77; Michel, 「히브리서」, 332-5; Schreiner, 「히브리서 주석」, 281-93.

20) Michel, 「히브리서」, 334.

21) Allen, “The Forgotten Spirit,” 56-8.

동사의 기능을 하면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한다. 이 구절도 앞에서 나온 3장 7절(λέγει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과 뒤에 나오는 10장 15절(Μαρτυρεῖ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와 더불어 성령의 말씀/증거 하시는 기능(말씀의 영감 혹은 성경의 원천)만으로 볼 수도 있으나,²²⁾ 우선 동사 δηλώω는 “보여 주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말하다/증거 하다”(λέγει/Μαρτυρεῖ)는 의미가 아닌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³⁾ 그래서 9장 8절에서의 성령은 참되고 확실한 것을 계시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들에 귀를 다시 기울일 필요가 있다.²⁴⁾

이 구절이 자리 잡고 있는 문맥(9:6-10)에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6-10절의 요지는 8b절의 표현대로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의 길(하늘의 성소)이 결코 나타나지(혹은 ‘계시되지’) 않았다”(μήπω πεφαιερῶσθαι τὴν τῶν ἁγίων ὁδὸν ἔτι τῆς πρώτης σκηπῆς ἐχούσης στάσις)는 것인데, “이 사실을 성령이 지금 보여주고(혹은 ‘계시해 주고’) 있다”(8a, τοῦτο δηλοῦντο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는 것이다. 이 구절의 앞과 뒤에 상용된 두 용어들(8a의 δηλοῦντος와 8b의 πεφαιερῶσθαι)이 바울(πεφαιερῶσθαι: 롬 1:18-19; 3:21; δηλοῦντος: 고전 3:13)이나 베드로(δηλοῦντος: 벰후 1:14)에게 있어서는 모두 계시(비교. 롬 1:17, ἀποκαλύπτεται)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다실 말해서 히브리서 9장 8절의 성령께서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

22) William L. Lane, *Hebrews 9-13,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Incorporated, 1991), 223; Attridge, *Hebrews*, 240; Craig R. Koester, *Hebrew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1), 397; Bruce, *The Epistle to the Hebrews*, 280.

23) 이 어구에서 「개역성경」(“성령이 보이신 것은”)과 「공동번역」(“성령이 보여주는 것은”)이 거의 동일한 번역을 제공한다.

24) Luke Timothy Johnson, *Hebrews,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2006), 223; Michel, 「히브리서」, 422.

하는 바를 “계시해주고 있다.” 즉,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로 항상 나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날이 도래하고 있었음을 계시하고 계셨다.”²⁵⁾

5. 히브리서 9장 14절-“영원하신 성령으로”(διὰ πνεύματος αἰωνίου)

이 어구에는 두 종류의 이문이 존재한다.²⁶⁾ 첫째는, 증거사본들(P^{17,46}, κ^* , A, B, D² K L 등)이 더 우세한 이문인 “영원하신 영으로”(διὰ πνεύματος αἰωνίου)인데, 「개역성경」(“영원하신 성령으로”)은 이 첫 번째 이문을 따랐지만 πνεύματος를 단순히 “영”이 아닌 “성령”으로 번역하였다. 둘째는, 덜 우세한 증거 사본들(κ^2 , D^{*} P 등)의 지지를 받는 이문인 “성령을 통하여”(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인데, 「공동번역」은 이 두 번째 이문을 따랐다. 이러한 본문 비평적 상황을 포함하여 히브리서 9장 14절이 히브리서의 성령 본문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문을 택하든 상관없이, 이 구절은 옛 경륜과 대비되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히브리서 9장 11-14절의 핵심내용)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대제사장직)을 감당할 힘을 공급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중요한 구절로 보인다.²⁷⁾ 성령을 위격으로는 보지 않는 Lindars는 이 어구를 “소명을 완수하도록 부여되는 힘(능력)으로” 본다.²⁸⁾ 하지만 Emmrich는 9장 14절의 성령을 위격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제사장직을

25) Schreiner, 「히브리서 주석」, 698.

26) Barbara and Kurt Aland, Johannes Karavidopoulos, Carlo M. Martini, and Bruce M. Metzger,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671의 본문비평장치 참조.

27) Motyer, “The Spirit in Hebrews,” 226-7.

28) Lindars, 「히브리서의 신학」, 92.

가능하게 해주는 소위 “Amtscharisma”(관직 카리스마, office charisma)를 부여하는 분이라고 주장한다.²⁹⁾ Michel도 이 구절에서 “거룩한 영은 예수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의 직무와 그의 희생을 떠받치는 힘이다.”라고 주석한다.³⁰⁾ Schreiner도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언급을 본다.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주석한다.³¹⁾ 그런 연유에서 주석가들은, 이 어구의 구약적 배경을 주의 종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능력이 덧입혀진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사 42:1; 61:1; 11:2)로 보는 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³²⁾

그렇다면 히브리서 설교자는 앞으로 언급할 11-13장의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과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내야 할 청자들에게 죽기까지 제자도의 길을 갈 힘을 공급해 주었고 또한 줄 분이 바로 “영원한 성령”이심을 9장 14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³³⁾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1:3; 비교, 딤후전 3:16; 벧전 3:18) 또한 사도 자신의 복음의 제사장 사역에(15:16-19) 또한 성도들의 사역에(7:5-6; 8:2) 힘을 공급하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9) Martin Emmrich, ““Amtscharisma”: Through the Eternal Spirit (Hebrews 9:14),”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2.1 (2002): 17-32; Emmrich, “Pneumatological Concepts in Hebrews,” 206-8.

30) Michel, 「히브리서」, 433.

31) Schreiner, 「히브리서 주석」, 696.

32) Lane, *Hebrews 9-13*, 240; Bruce, *The Epistle to the Hebrews*, 217-8; .

33) Motyer, “The Spirit in Hebrews,” 227.

6. 히브리서 10장 15절-“성령이 증거 하신다”(Μαρτυρεῖ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히브리서 10장 15절(“성령이 증거한다”)을 3장 7절(“성령이 말한다”)과 같은 의미로 주석한다. 즉, 성령께서 자신이 영감을 주어 기록하게 한 말씀(여기서는 예레미야서)을 통하여 지금의 청지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 구절의 동사(“증거 한다”, μαρτυρεῖ)와 2장 4절의 동사(하나님이 “함께 증거 한다”, συνεμαρτυροῦντος)가 동일한 개념임을 들어 하나님과 성령의 사역이 동일함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고,³⁴⁾ 이 구절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계시의 말씀(new oracl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여 말하는 견해도 있다.³⁵⁾

이때 “새로운 계시의 말씀”이라 함은 앞에서 언급한 Emmrich의 주장에 대한 비평인데, 그는 히브리서 설교자로 하여금 10장 15절에서 자신이 인용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침삭이나 확장하여 설명하면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하였다”: 히 10:11-18)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주장한다.³⁶⁾ 이러한 관점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들을 밝혀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해석이다. 히브리서가 그리는 성령의 이러한 행하심과 기능은 요한(요한 14:26; 16:12-15; 요일 2:27)이나 바울(고전 2:10-16)이 그리고 있는 성령과도 일맥상통한다.

34) Attridge, *Hebrews*, 281; Schreiner, 「히브리서 주석」, 696.

35) Cockerill, *The Epistle to the Hebrews*, 454-5.

36) Emmrich, “Pneuma in Hebrews,” 60-3.

7. 히브리서 10장 29절-“은혜의 성령”(τὸ πνεῦμα τῆς χάριτος)

히브리서 10장 29절의 성령어구(τὸ πνεῦμα τῆς χάριτος)에는 πνεῦμα앞에 관사가 있지만, 형용사(τὸ ἅγιον)는 없고 대신에 속격의 수식어(τῆς χάριτος)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개역성경」) 혹은 “은총의 성령”(「공동번역」) 등으로 번역되었다. 이 어구에 대한 구약 본문의 암시로서가랴 12장 10절(LXX, πνεῦμα χάριτος)로 보는 학자들과³⁷⁾ 요엘서 2장 28절이하(LXX 3:1이하, ἀπὸ τοῦ πνεύματός μου: “나의 영”)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³⁸⁾ 그리고 χάριτος를 원천의 속격(genitive of source) 혹은 속성의 속격(genitive of attribute)으로 보아 이 어구를 “은혜를 주시는” 혹은 “은혜로운”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히브리서 10장 29절의 “τὸ πνεῦμα τῆς χάριτος”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임을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히브리서 10절 29절은 히브리서의 네 번째 경고단락(10:26-31)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극심한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거절하고자 하는 청자들(26, 29절)을 “하나님의 심판”(27, 29-31절)과 “형벌”(29절) 등을 언급하면서 경고하는 문맥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 경고의 핵심 구절인 29절은, 이러한 배도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ὁ τὸν υἱὸν τοῦ θεοῦ καταπατήσας)이고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τὸ αἷμα τῆς διαθήκης κοινὸν ἠγησάμενος, ἐν ᾧ ἡγιασθη)이며 동시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τὸ πνεῦμα τῆς χάριτος ἐνυβρίσας)이기 때문에,³⁹⁾ 그 형벌이 더 크다고 경고한

37) Paul Ellingworth, *Commentary on Hebrews,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3), 539; Lane, *Hebrews 9-13*, 196-7; Michel, 「히브리서」, 486.

38) Attridge, *Hebrews*, 295.

39) 29절에 세 개의 분사형으로 반복되는 세 어구는 하나의 남성 단수 관사(ὁ)에 두 개

다. 이때 성령은, 배도의 위험에 처한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믿음을 견지하여 “이같이 큰 구원”(히 2:3)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라고, 그들 안에서 엄격하지만 은혜의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러한 기능은 종말론적인 순례자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이끌고 훈련하는 역할이라면서 “보응적 성령론”(retributive pneumatology)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학자의 견해를⁴⁰⁾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IV. 히브리서의 성령론에 관한 종합과 비교

본 단락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히브리서의 성령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고 대별해 보기로 한다. 그 후에 신약의 다른 저자들(특히 바울과 요한)에서 나타나는 성령론과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히브리서의 성령의 활동에 따른 구분

앞선 분석을 종합하고 구분해 보면, 히브리서에서의 성령의 역할과 활동은 다음과 같이 대략 네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히브리서는 거듭난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indwelling Holy Spirit)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는 히브리서 2장 4절(오순절의 재현이든,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든)과 6장 4절에서 발견되는 사실이다.

둘째, 히브리서에서 성령은 기록된 성경의 단순한 감동자(inspirer)만

의 접속사(καί)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 분사들이 동일한 인물을 묘사하는 행위자임을 보여주도록 번역하였다. 이때 세 개의 분사형으로 표현된 행위는 모두 배도를 의미한다: Schreiner, 「히브리서 주석」, 697.

40) Emmrich, “Pneumatological Concepts in Hebrews,” 203-4.

이 아니라 현재의 능동적인 해석자(interpreter)이다. 히브리서의 성령구절 중 세 곳(3:7; 9:8; 10:15)에서 성령은 성경(시편, 출애굽기와 레위기, 예레미야서)의 참 저자임을 암시한다.⁴¹⁾ 이 세 구절에서는 성령이 현재형의 동사들(3:7의 “말씀하신다, λέγει,” 9:8의 “보이신다, ὁλοῦντος,” 10:15의 “증언하신다, μαρτυρεῖ”)의 주어로 등장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의 계시와 대언 및 해석의 기능을 감당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준다.⁴²⁾ 그러나 현재형 동사로 사용된 용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의 저자에 초점을 맞췄다고보다는 성경의 사용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자신이 인용한 설교 본문을 통하여 성령께서 새로운 통찰과 적용을 부여하여 마치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때 인용한 본문에 침삭(3:7-11; 10:16-17), 설교적 확장(3:7-8; 9:6-9; 10:15-18), 어순 변화(3:7-9) 등이 가해진다. 이렇게 성령은 구약시대나 초대교회에서처럼 현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

셋째, 히브리서의 성령구절 일곱 중에서 네 구절이 히브리서의 경고단락 다섯 중의 네 곳(2:1-4; 3:7-11; 6:4-6; 10:26-29)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성령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순례여정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한다. 이같이 구원의 전체 과정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할은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히브리서의 이러한 성령론은 극한 위기의 순간(배도)에 강하게 역사하는 “보유적 성령론”(Emmrich의 용어)은 히브리서의 성령론의 특징이 되기에 충분한 측면이다.

넷째, 앞에서 Emmrich의 주장에서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에는 성령이 그

41) Lindars, 「히브리서 신학」, 91-2.

42) Motyer, “The Spirit in Hebrews”, 223; Levison, *Inspired*, 154-6.

리스도와 신자들의 제사장직(9:14)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위 “Amtscharisma” (관직 카리스마)를 부여하는 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Lindars는 히브리서 9장 14절의 성령어구(διὰ πνεύματος αἰωνίου)를 2장 4절과 6장 4절의 성령어구들과 함께 분류하여(관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속성으로 보고 성령의 위격을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였다.⁴³⁾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히브리서의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속성(2:4; 6:4; 9:14)과 성경 말씀의 참 저자(3:7; 9:8; 10:15)로만 보는 Lindars의 견해는 여러 면에서 정확하지도 않고 부족해 보인다.⁴⁴⁾ 그리고 히브리서의 일곱 성령구절 거의 모두를 오순절 신학으로 읽기를 시도하여, 그중에서 두 구절의 성령(3:7; 10:15)을 성경의 저자로 나머지 다섯 구절의 성령(2:4; 6:4; 10:29; 9:8; 9:14)을 오순절(사도행전 2장)의 반복으로 보고자 했던 Allen의 견해는 그 반대의 극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⁵⁾

이에 비하여 앞에서 이미 논의한 대로, Emmrich, Motyer, Levison, Schreiner 등의 학자들은 이 양극단을 넘어서고 히브리서의 성령론을 다양하게 펼쳐 보인 공헌이 있다고 보인다.⁴⁶⁾ 이들은 히브리서의 성령의 역할을 성경의 저자와 영감자(inspirer)와 해석자(interpreter), 구원의 인도자, 사역과 제자도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 등으로 확장하여 설명하였다. 신약의 성령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신약학자들(John Carroll, Keith Warrington, Anthony Thiselton)의 책에서도 히브리서의 성령론

43) Lindars, 「히브리서 신학」, 89-92.

44) Ibid.

45) Allen, “The Forgotten Spirit’,” 51-66.

46) 앞에서 이미 인용한 Emmrich(박사논문과 두 개의 학술지 논문), Motyer(기념논문집에 실린 논문), Levison(논문과 책) 등의 글을 참고.

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한 히브리서의 성령의 기능이 비교적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Thiselton은 히브리서의 성령 언급 중에서 분명하다고 여기는 다섯 곳(2:4; 6:4; 3:7; 10:15; 10:29)과 불분명하다고 여기는 두 곳(9:14; 12:9)을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⁴⁷⁾ Warrington은 히브리서의 성령의 사역을, 영감과 계시(3:7; 10:5)와 구원여정에서의 사역(2:4; 6:4; 9:8, 14; 10:29),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논하고 있다.⁴⁸⁾ Carroll은 히브리서의 성령은 성경의 저자(3:7-11; 10:15-17)와 해석자(9:8), 용서와 심판의 대리자(9:14; 10:29), 은사를 주시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분(2:1-4; 6:4-6)이라고 해석한다.⁴⁹⁾

2. 히브리서의 성령론의 특징과 신약의 다른 책들의 성령론과의 비교

앞 단락에서 어느 정도는 간간이 언급하였지만, 다른 신약의 저자들(바울과 요한)의 성령론과 히브리서의 성령론의 유사성과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히브리서 2장 4절과 6장 4절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의 재현으로 볼 수도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4절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와 견주어 볼 수도 있다. 이 구절들에서도 히브리서의 성령론의 특징은, 신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어휘(2:4, *μερισμοίς*)나 독특한 표현(6:4, *μετόχου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을 사용하고 또한 경고단락에서 사용된 성령언어를 통하여, 구원의 과정에서 역사하시

47) Thiselton, *The Holy Spirit*, 153-6.

48) Keith Warrington, *Discovering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5), 188-95.

49) John T. Carroll,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2018), 127-31.

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점에 있다.

둘째, 히브리서 설교자가 3장 7절과 10장 15절에서 전제로 하는, 성령이 성경의 감동자(inspirer)라는 신학은 다른 사도들의 신학에서도 나타난다(딤후 3:16; 벨후 1:20-21). 히브리서가 이 구절들(3:7; 9:8; 10:15)에서 언급하는 성령의 역할, 즉 이 영감 받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해석(interpreter)하면서 각 시대의 교회(성도 개인을 포함하여)에게 그 당대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할도 요한(요 14-16장; 요일 2:27; 계 2-3장)과 바울(롬 15:4; 롬 8장)에게서 발견된다. 하지만 이때 히브리서의 성령론의 특징은 인용한 본문에 대한 침삭(3:7-11; 10:16-17), 설교적 확장(3:7-8; 9:6-9; 10:15-18), 어순 변화(3:7-9)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이는 성령의 색다른 역할에 대한 묘사에 있다.

셋째, 히브리서의 경고단락들(2:4; 3:7; 6:4; 10:29)에서 성령이 인간 구원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논의한 히브리서의 성령론도 역시 바울이나 요한의 성령론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요 3:5; 딤후 3:5),⁵⁰⁾ 구원을 유지하고 이루어 가시는 성령(요일 2:27; 롬 8:12-17),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갈 6:8; 딤후 3:4-7) 등이다. 또한 구원을 칭의, 성화, 영화라는 삼 단계로 나누는 조직신학적인 틀로 보아도 갈라디아서의 성령은 매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분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갈 3:1-5; 5:16-26; 6:8).⁵¹⁾ 하지만 히브리서의 성령론의 특징은, Emmrich가 “보응적 성령론”(retributive

50) 요한복음 3장 5절과 디도서 3장 5절의 성령의 역할에 대한 해석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동수, “디도서 3장 4-7절 연구,” 『복음과 실천』 53 (2014년 봄): 45-68; Robert W. Wall, “Salvation’s Bath by the Spirit: A Study of Titus 3:5b-6 in Its Canonical Setting,” in I. Howard Marshall et al eds., *Spirit and Christ in the New Testament and Christian Theology: Essays in Honor of Max Turner* (Grand Rapids: Eerdmans, 2012), 198-212 등을 참조.

51) 종말론 및 구원론과 연관한 갈라디아서의 성령론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장동수, “갈라디아서의 성령론,” 『복음과 실천』 47 (2011년 봄): 35-54를 참조.

pneumatology)이라고까지 지적한 것처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경고단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할의 긴박성과 단호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성령의 역할은 바울(롬 1:4; 7:5-6; 8:2; 15:16-19)과 요한(요 14-16장)에게서도 충분히 발견된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대로, 히브리서 9장 14절의 성령의 이러한 역할은, 그의 동시대의 신약 저자들과 겹치는 면도 물론 함유되어 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제자도를 권면하는 히브리서 설교자가 신약의 성령론에 독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V. 결론과 적용

이상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히브리서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적지만 다른 책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깊고 포괄적인 성령론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는 성령론이 없다는 기존의 견해들은 잘못되었다.

둘째, 히브리서의 성령론은 신약의 다른 책들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 특징 또한 존재한다. 공통점은 오순절의 재현, 은사 분배, 내주하시는 성령, 구원에 관여하시는 성령, 성경의 영감자와 해석자 등이다. 하지만 그 특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현재도 말씀하시고, 해석해주시고, 밝혀주시는 역할이 유난히 강조된 점이다.

셋째, 히브리서의 성령구절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하는 극심한 박해의 상황에서 주어진 서신의 경고단락들에 집중되어있어서, 히브리서의 성령의 역할은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할에 초점이 강렬하게

맞추어져 있다. 이 점이 히브리서 성령론의 또 다른 특징이다.

넷째, 히브리서의 제자도에 힘을 주는 구절(히 9:14)에서도 성령의 역할이 돋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힘을 공급하신 성령께서 청자들에게도 그 뒤를 따라갈 힘을 준다는 사실이 확신 있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히 2:14-18; 4:14-16; 그리고 11-13장의 권면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이러한 성령론의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어 히브리서를 독해할 때 이 서신의 이해를 풍성하게 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히브리서의 성령론에 대한 정확하고 섬세한 이해는 신약의 다른 책에 나타난 성령론의 지평도 넓혀 주리라 확신한다.

참고자료

1. 비평본문

Aland, Barbara and Kurt, Johannes Karavidopoulos, Carlo M. Martini, and Bruce M. Metzger,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Rahlfs, Alfred,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

2. 단행본

Lindars, Barnabas. 「히브리서의 신학」. 장동수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1.

Michel, Otto. 「히브리서」. 강원돈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Schreiner, Thomas R. 「히브리서 주석」. 장호준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Attridge, Harold W.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Bateman, Herbert, ed. *Four Views on the Warning Passages in the Hebrew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7.

Bruce, F. F. *The Epistle to the Hebrews*, 2d ed.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Carroll, John T.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2018.

Cockerill, Gareth Lee. *The Epistle to the Hebrews*, 2d ed.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12.

Ellingworth, Paul. *Commentary on Hebrews.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3.

- Johnson, Luke Timothy. *Hebrews.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2006.
- Koester, Craig R. *Hebrew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1.
- Lane, William L. *Hebrews 1-8.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Incorporated, 1991.
- _____. *Hebrews 9-13.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Incorporated, 1991.
- Levison, Jack. *Inspired: The Holy Spirit and the Mind of Faith*. Grand Rapids: Eerdmans, 2013.
- Marshall, I. Howard, et al eds. *The Spirit and Christ in the New Testament & Christian Theology: Essays in Honor of Max Turner*. Grand Rapids: Eerdmans, 2012.
- Porter, Stanley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Swete, H. B.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1909; repr., Eugene: Wipf&Stock, 1998.
- Thiselton, Anthony C. *The Holy Spirit-In Biblical Teaching, Through the Centuries, and Today*. Grand Rapids: Eerdmans, 2013.
- Turner, Max. *The Holy Spirit and Spiritual Gifts - Then and Now*. Carlisle: Paternoster, 1996.
- Warrington, Keith. *Discovering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5.

2. 정기간행물/논문

- 장동수. “디도서 3장 4-7절 연구.” 「복음과 실천」 53 (2014년 봄): 45-68.
- _____. “갈라디아서의 성령론.” 「복음과 실천」 47 (2011년 봄): 35-54.
- _____. “히브리서 기독교론의 성격과 목적.” 「복음과 실천」 33 (2004년 봄): 33-58.

- Allen, David M. "The Forgotten Spirit': A Pentecostal Reading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Journal of Pentecostal Theology* 18 (2009): 51-66.
- _____. "The Holy spirit as Gift or Giver? Retaining the Pentecostal Dimension of Hebrews 2.4," *Bible Translator* 59.3 (2008) 59.3 (2008): 151-8.
- Emmrich, Martin. "'Amtscharisma': Through the Eternal Spirit (Hebrews 9:14),"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2.1 (2002): 17-32.
- _____. "Pneuma in Hebrews: Prophet and Interpreter,"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3 (2002): 55-71.
- _____. "Pneumatological Concepts in Hebrews"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1).
- Levison, Jack. "A Theology of the Spirit in the Letter to the Hebrew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8 (2016): 90-110.
- Motyer, Steve. "The Spirit in Hebrews: No Longer Forgotten?" pp. 213-27 in *The Spirit and Christ in the New Testament & Christian Theology: Essays in Honor of Max Turner*. Edited by I. Howard Marshall, Volker Rabens, and Cornelis Bennema. Grand Rapids: Eerdmans, 2012.
- Wall, Robert W. "Salvation's Bath by the Spirit: A Study of Titus 3:5b-6 in Its Canonical Setting." pp. 198-212 in *The Spirit and Christ in the New Testament & Christian Theology: Essays in Honor of Max Turner*. Edited by I. Howard Marshall, Volker Rabens, and Cornelis Bennema. Grand Rapids: Eerdmans, 2012.